

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. 인삼 주요 생산국 중 중국은 최근에 품종을 육성하기 시작하였으며, 캐나다와 미국은 야생삼 재배 및 기계화로 인삼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. 중국은 2003년도에 길삼1호, 황과삼, 보천 등의 품종을 개발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, 품종의 농가 보급은 미흡한 실정('06, 종자원)이다. 해외에서는 주로 고려인삼(*Panax ginseng* C. A. Mey.), 미국삼(*P. quinquefolius* L.), 삼칠삼(*P. notoginseng* (Burkill) F. H. Chen ex C. H. Chow) 등 식물의 기원이 다른 식물체를 대상으로 이들의 종 간 구분과 관련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을 뿐, 인삼의 원산지 판별과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는 진행된 적이 없다. 유럽 등지에서는 포도주, 주스, 치즈 등의 다양한 가공제품 등을 대상으로 전자코 등을 이용하여 원산지 판별 및 품질관리 활용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. 국내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국내산 인삼 종자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유출된 자원의 수집과 분석재료를 확보하여 국내산과 중국산의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과학적인 분석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.